

집속탄금지협약 제2차 당사국회의

The Second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참가 보고회



معاً من أجل
حياة آمنة

المؤتمر الثاني للدول الأطراف في
اتفاقية حظر القنابل العنقودية،

بيروت ١٢-١٦ أيلول ٢٠١١



together for a
SAFER LIFE

Second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Beirut, September 12-16, 2011

2011년 10월 7일 금요일 7시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순서>

1. 필드트립 및 레바논 상황 정리 : 아침
2. CCM 2차당사국회의 핵심내용 정리 : 가람
3. CCM 2차당사국회의 시민사회영역 정리 : 여옥
4. 토론 및 소감나누기

1. 필드트립 및 레바논 상황 정리

1-1. 레바논과 2MSP

집속탄금지협약 제2차 당사국회의는 2011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렸다. 2006년 8월 이스라엘에 의해 사용된 엄청난 규모의 집속탄이 레바논 남부를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감을 형성하였고 집속탄금지협약의 발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레바논은 집속탄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강력한 사례를 제공한다. UN에 의하면, 2006년 7월 레바논에서의 전쟁 마지막 72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의해 4백만개 이상의 집속탄이 레바논 남부에 발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레바논의 다른 지역과 남부와 베카 서부에 걸쳐있는 수만개의 불발탄과 지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강렬하고 무작위적인 폭격은 레바논 남부의 다른 1,200 지역에 걸쳐 흩어졌었다. 뿐만 아니라 40%의 집속탄은 충격에 의해 폭발하지 않은채 민간인과 농지, 주거지역, 학교와 사회기반시설을 오염시키고 있고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회복과 시민들의 삶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휴전 상태인 8월 14일에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속탄의 피해를 받았고 그 중의 90%는 민간인이었고 1/3이 18살 이하였다.

1-2. 레바논(위키피디아에서 발췌)

레바논 공화국(아랍어: الجمهورية اللبنانية 루브난)은 중동에 있는 이슬람교 59% 기독교 39% 의 다종교 국가로서,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수도는 베이루트이다.

- 인구 : 2006년 어림 3,874,050명. (레바논 인구가 400만명인 데 비해 조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레바논인이 1600만명)

- 면적 : 10,452 km² (166위)

- GDP : 2005년 어림값 · 전체 \$194.9억 (103위) · 일인당 \$5,100 (90위)

- 지리 및 기후 : 레바논은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이 나란히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고 그 사이에 평지(베카계곡)가 있다. 평지는 그 밖에도 협장(狹長)한 해안 평야가 있다. 기후는 지중해성이지만 강우량은 동쪽으로 감에 따라 감소한다. 레바논은 연중 약 300일간 맑은 날씨를 보인다. 겨울에도 해안지역은 따뜻하고, 산간지역에만 눈이 내린다. 여름에는 해안지역은 덥고, 산간지역은 따뜻하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레바논에서는 봄 동안에 같은 날 산에서는 스키를 타고, 해변에서는 해수욕을 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 종교 : 레바논은 공식적으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지 않은 유일한 아랍 국가이다. 인구구성은 아랍인이 95% 이상이고 아르메니아인이 4% 가량이며, 종교는 이슬람교 55.7%, 기독교 43% 이며, 기독교는 칼케돈공의회 당시 갈라져 나온 비 칼케돈공의회 교회인 마론파가 가장 많으며, 그외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등의 기타 기독교 종파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600년대 초 아라비아 반도부터 이슬람교도가 레바논에 정복하는 바람에 서서히 아랍화·이슬람화가 진행되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종교인 드루즈도 있다. 프랑스가 시리아를 독립시킬 당시 마론파 그리스도인이 많았던 레바논 지역을 따로 분리 독립시킨 것이 현재의 레바논이며, 독립당시는 기독교 비율이 과반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이슬람인구가 과반을 넘어가며 기독교국가도 이슬람국가도 아닌 다종교,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이다.

- 정치 : 레바논에서는 정계에서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이 평등하게 공직을 맡는다거나 하는 종교 간의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전을 종교 간의 대립으로만 보는 것은 편

향된 생각이다. 독립 초기 레바논의 의석 과반이상을 점유하던 마론파 기독교계의 위상은 점차 축소되어 이제는 이슬람교계 의석이 과반을 넘김에 따라 기독교계 대통령은 이슬람계의 눈치를 보거나 지원을 얻지 않고는 당선에 어려울 지경에 이르러 있다.

- 군대 : 레바논은 2007년 2월 10일 레바논 국회의 징병제 폐지안에 따른 헌법 개정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 역사 :

좋은 항구를 가진 해택으로 레바논은 옛날부터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여 왔다. 약 5,000년 전 기원전 3000년경부터 페니키아인이 해안지대를 근거지로 하여 티루스(지금의 티레)·시돈 등의 도시국가를 건설했다. 그 뒤, 바빌로니아·페르시아 제국·로마 제국 등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는 기원전 64년에 레바논을 점령했다. 로마시대에는 티루스에 해군기지가 설치되었으며, 서기 300년대에 기독교가 널리 퍼졌다. 395년에 레바논은 비잔틴 제국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600년대초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아랍인들에게 정복된 이후부터 아랍화·이슬람화가 진행되었다. 이 시대에는 산악지대가 시아파(派)·드루즈파 등의 이슬람교 이단파와 마론파 그리스도 교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11~12세기에는 셀주크 터키와 십자군의 쟁탈장이 되었으며, 1516년에 오스만 제국에게 정복되어 19세기까지 이 제국의 술탄 밑에서 반독립적인 여러 세력이 레바논을 지배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오스만 제국은 레바논의 직접적인 지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마론파 기독교도와 드루즈파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살해되었다. 이 분쟁에 프랑스가 개입한 것을 계기로 1861년 마론파 기독교인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했다. 또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함에 따라 1920년 4월 산 레몬 회의에서 베카고원 등의 내륙부도 레바논에 합병되었으며, 1923년에는 시리아 등과 함께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하여 레바논에서의 그리스도 교인과 이슬람 교인의 수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마론파 그리스도 교인들의 우위는 무너졌으며, 그 뒤 정세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1926년 시리아에서 분리되어 위임통치 아래 자치국이 되었고, 1944년 1월에 완전독립을 달성했다. 독립 뒤 레바논은 복잡한 종파(宗派)의 대립을 배경으로 독특한 종교연합국가를 형성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철저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아랍 여러 나라의 물자와 정보 제공의 중간자적 역할로 독자적인 번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난 중동전쟁에 말려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1970년의 요르단내전 이후 요르단으로부터 수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유입되어 레바논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근거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따금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을 받았으며, 마론파 그리스도 교인들도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에 반대하는 팔랑헤(Phalange)민병대를 결성했는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게릴라에 반대하는 이들을 지원했다. 1975년 2월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이슬람교도와 이에 반대, 팔랑헤 민병대를 결성한 마론파 그리스도 교인들의 내전이 일어났으며, 1976년 11월에는 시리아군의 개입을 초래했다. 또한 1982년 6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여 PLO 소탕을 위해 서(西)베이루트를 완전히 포위하고, 2개월에 걸쳐서 맹폭격을 가했다. 그해 8월 미국의 중재에 의하여 PLO의 서베이루트 주둔 군대의 철수 합의가 성립되어 약 1만 명의 PLO 게릴라는 아랍 세계 8개국으로 퇴거했다. 그 이후에도 1982년 9월의 기독교 민병의 팔레스타인 난민 학살사건, 1983년 7~9월의 기독교·이슬람교 각 파에 의한 내전 격화와 미국 해군의 함포사격, 1983년 10월의 미국 및 프랑스의 주둔 본부에서의 폭탄테러사건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1984년 1월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이슬람교도 세력과 정부군·기독교 민

병대의 내전이 또다시 격화되었으며, 미국 해군은 이슬람교 민병대 거점에 재차 함포사격을 가했다. 그해 2월 이슬람교 세력이 총궐기하여 서베이루트를 제압했으며, 3월에는 시리아의 주도 아래 정전(停戰)이 실현되었다. 2006년에는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다.

1-3. 이스라엘 침공

침공 한 달 동안(2006년 7월12일 ~ 8월14일)

- 폭격 9,500회, 사망 약 1천2백 명(1/3이 어린이), 부상 약 4천명(1/3이 어린이)
- 난민 약 97만 명(전체 인구의 1/4 가량), 주택 약 1만 5천 채 가량 파괴
- 공항, 부두, 상하수도 시설, 전기 시설 등 31개 주요 시설 및 80개 다리와 84개 도로 파괴

1-4. 플리타

- 플리타는 2000년 이전까지 이스라엘에 점령되어 있던 레바논 남부에서 무자헤딘(지하드에서 싸우는 전사)이 배치되었던 산악지역(나바티예에서 19km). 고대 시리아 말로 repletion(충만, 만복)이란 뜻.

- 저항의 성지라는 소개를 받고 신청해서 갔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쟁기념관.

- 영화상영 : 플리타를 홍보하는 영상. 이스라엘과 얼마나 영웅적으로 싸웠는지와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장면들과 헤즈볼라 사무총장 하산 나스랄라의 연설

- 전시관 관람 :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무기들과 이스라엘이 하는 거짓말들에 대한 자료들 등

- 야외 전시공간 :

① 아비스 : 이스라엘은 그 장소를 아비스(지옥)라고 부르는 구덩이를 만들어 레바논 전사들을 물어버리겠다고 했었는데 그 구덩이에 포획한 이스라엘 무기들을 전시해둠. 노즐이 묶인 탱크를 전시해두었는데 마카바(신의 무기란 뜻) 탱크로 이스라엘의 자신감의 상징이었지만 전쟁 후 200기를 잃었다고 함. 기울어진 기둥들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함. 러시아제 탱크들도 있었는데 1973년 이집트 전쟁 때 3-400기를 빼앗아 개조해서 사용.

② 산책로 : 헤즈볼라가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곳. 기도하는 곳, 무거운 무기들을 높은 산까지 사람이 들고 날랐다고 함. 별다른 도구없이 250m 정도 더 파 들어가 사용한 동굴 등 관람

③ 기념비 : 홍보영화에도 나오는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의 연설(?)문. “신에게 맹세코 이스라엘은 거미줄보다 약하다!”

1-5. 나바티예

- 공식일정의 첫 번째 날인 9월 12일 월요일에 2006년 이스라엘이 사용한 집속탄의 불발탄이 아직 남아있는 지역으로 현장방문(정부관계자들을 비롯한 회의참가자들 전체가 나바티예 Nabatiyeh 지역과 사라펀드 지역으로 나누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한국참가팀 세 명은 나바티예 지역을 다녀옴.)

- 첫 번째 구역 : 레바논에서 집속탄/지뢰와 관련되어 하고있는 활동을 홍보하는 부스, 사진들과 자료들 전시. 레바논 전통 토기굽는 모습과 물병에 그림그리기 등의 체험(?) 행사, 그리고 레바논 전통 팔라페를 만들어서 나누어줌. (엄청 짬뽕 >_<)

- 두 번째 구역 : 집속탄 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제거에 필요한 도구들 전시와 제거작업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대한 시연,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날 오전 찾아낸 불발탄을 터뜨리는 것을 보여줌.

- 레바논에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집속탄의 숫자는 약 420만개로 추정되며 전쟁 이후 400명 이상의 불발탄 피해자를 양산. 불발탄으로 인한 사상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오염지역은 농사도 지을 수도 없어서 생계를 꾸리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 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 불발 집속탄이 남아있는 자기 땅에서 스스로 불발탄 제거를 시도하다가 다친 경우도 많다고 함. 2006년 8월 14일(베이루트에서 UN의 중재로 14일 오전 휴전협정이 발효됨) 이후로 집속탄 불발탄에 의한 레바논 남부지역 사상자는 현재까지 총 408명. 현재까지 67%정도가 정화되어 집속탄 정화 작업의 이상적인 모델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33% 정도가 남아있음. 레바논에 사용된 집속탄은 98%가 미국산. 나바티예 지역은 레바논 사람들의 거주지이기도 했지만 헤즈볼라의 활동 구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집속탄 폭격의 목표지점이 됨. 나바티예 지역에만 1700여개의 집속탄이 투하되었다고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고 제거해야하는 불발탄의 수치를 가늠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사용된(=이스라엘에 수출된) 집속탄의 숫자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함. (썩을 미국은 CCM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 -:-))

- 2006년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나바티예의 20,000m² 오염구역 중 15,000m²에서 150여개의 소폭탄을 제거. 나바티예 지역에서 일하는 팀은 지뢰제거반/팀 리더 및 감독관/의료반으로 구성. 지침서는 지뢰용/집속탄용으로 나누어 구비. 시민단체 혹은 다른 업체로 이루어진 QA visiting(활동 검사 및 감시)이 매일/매주/일정기간마다 이루어짐. 방문자들은 제거가 완료된 지역에 들어가 볼 수도 있으나 특수 보호장비를 갖추고 들어가야 함(만약을 대비하여 혈액형을 반드시 기입).

- 나바티예에 사용된 집속탄의 종류

M42(155mm), 88개의 소폭탄이 하나의 집속탄에 들어있음

BLU63, 650개의 소폭탄이 하나의 집속탄에 들어있음

그 외에도 644개의 소폭탄이 들어있는 MLRS 로켓도 사용되었음

2. CCM 2차당사국회의 결과 정리

2-1. 짐속탄금지협약CCM 진행 경과

2-1-1. 오슬로 프로세스

-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 정부가
 - 짐속탄의 사용, 생산, 이전, 비축 금지
 - 비축분 파괴, 오염 정화, 피해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2007년 5월, 페루 / 2007년 12월, 오스트리아 / 2008년 2월 뉴질랜드 회의
- 2008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107개국이 모여 협약을 채택
- 2008년 12월 오슬로에서 94개국이 협약에 서명
- 2010년 2월 30개국이 비준
- 2010년 8월 1일 발효

2-1-2. 1차 당사국회의: 비엔티안 액션플랜

- 2010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1차 당사국회의(1MSP) 개최
 - 정부 대표 500여 명,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500여 명 참여
 - 비엔티안 선언 채택: “모든 국가들은 이 협약에서 도출된 새로운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짐속탄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입장은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이다.”
 - 비엔티안 액션플랜: 당사국의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66가지 구체적 전략 수립
 - ☞ 1년 이내 비축분 폐기 계획 수립, 8년 이내 비축분 폐기
 - ☞ 1년 이내 오염지역 파악 및 정화 계획 수립, 10년 이내 오염지역 정화
 - ☞ 6개월 이내 피해자지원 업무 총괄 기관 지정, 적극적인 지원 제공
 - ☞ 오염정화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원조 확대)
- 2011년 6월, 스위스 제네바 회기간 회의

2-1-3. 2차 당사국회의

- 2011년 9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2차 당사국회의(2MSP) 개최
 - 협약의무 이행에 관한 경과 보고
 - 협약 이행 및 보편화 조항에 관한 핵심 결의안(key decisions) 채택
 - 비서명국의 서명을 위한 진행 경과 보고

2-2. 2차 당사국회의 보고

2-2-1. 회의 개괄

회의 모토: “Together for a safer life”

공식 일정: 2011년 9월 13일(화) ~ 9월 16일(금)

CMC일정: 2011년 9월 11일(일) ~ 9월 17일(토)

회의 장소: Pheonecia hotel, 베이루트, 레바논

의 장: Mr. Adnan Mansour (레바논 외교이민부 장관)

“레바논은 2차 당사국회의를 통해서 협약을 세계적으로 보편화하고 함께 더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를 염원합니다.”

2-2-2. 회의 내용

● 국가별 기본의견 공유(General exchange of views):

- 서명/비준 관련 입장 및 진행상황 보고
- 생산/보유/비축/파기/이전 관련 협약 의무사항 이행 경과보고
- 피해자 지원 활동 및 집속탄 정화에 관한 국내외 자금 지원활동 보고
- 비서명국의 서명에 관한 입장이나 계획
 - ☞ 벨기에, EU, 영국 등이 불발탄 제거 작업 및 피해자 지원에 지원금을 제공
 - ☞ 영국(UK): 집속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건에 힘을 쏟아야 함. “Halls!!”
 - ☞ 중국: 집속탄의 기술적 개선을 통해 집속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방을 위해서라면 집속탄을 사용할 수 있음.
 - ☞ CMC(Steve Goose): CCM은 집속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보편화(Universalization) 제 21조 1항

- 일본: 협약의 보편화를 위해 벨기에, ICRC 등 여러 국가와 기구들이 속한 워킹그룹의 리더 역할을 자임하고 활동 중
- 영국: 영연방국가들 간의 CCM 보편화를 위한 노력 중
- CMC: Lynnbradach(미국)가 협약 보편화를 위한 Join the Team 활동에 관해 발언

● 보관 및 비축분 폐기(Storage and Stockpile destruction) 제 3조

- 비축분 폐기 완료 국가: 8개 당사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콰도르, 몰도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서명국(헝가리, 콜롬비아, 체코..)
- 비축분 폐기 의무 이행 요망: BiH,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기니아-B, 일본,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영국(UK)
- 비축분 보관의사 표명: 벨기에(1만개+a), 프랑스(1만개+a), 스페인(1만개+a), 독일(최소 수), 덴마크

● 정화 및 위험 감소(Clearance and Risk reduction) 제 4조

- 집속탄 오염국: 당사국 중 9개국(아프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독일, 기니, 라오스, 레바논,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독일과 노르웨이(2011년 군사훈련지역에 불발탄이 발견된 것으로 의심)
- 정화작업 진행/완료 국가: 아프가니스탄, BiH, 콩고공화국, 독일, 레바논, 라오스, 노르웨이, 수단 등
- 국제신탁기금(International Trust Fund)과 UN지뢰대책기관(UN Mine Action Service), CMC가 더욱 적극적인 정화작업 및 지원을 촉구

● 피해자 지원(Victim Assistance) 제 5조

-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행

-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있어야 함

- CMC

1. 모든 참가국은 재정, 기술 등 가능한 모든 분야의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2. 모든 참가국은 적절한 시간, 비용을 고려한 의무 이행 계획을 보고해야 함

이행 결과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를 보고해야 함

3. 정화 및 피해자 지원과 같은 장기 계획과 관련하여 이행 계획과 결과를 보고해야 함

정화 및 비축분 폐기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과 비용대비 효과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CCM에서 결정하고 있는 의무는 정해진 기한 내에 분명히 이행 가능함

● 투명성 조치(Transparency Measures) 제 7조

- 모든 가입국이 양질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뉴질랜드: 집속탄 비피해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내법 모델 제안

● 국내 이행 조치(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 제 9조

- 뉴질랜드: 협약 당사국들의 국내 이행 조치를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공유

● 협력과 지원(Cooperation and Assistance)

- 2010 Workplan

- 가입국들의 협약 의무 이행을 원조할 '이행지원단(implementation support unit)'의 구성과 활동을 촉구함.

● 피해자 선언문(Victim Declaration)

1. Moklead - 레바논 출신, 집속탄으로 5살 아들이 사망

2. Margaret Arach Orech - 우간다 출신, 지뢰 생존자

3. Thoumy Silamphan - 라오스 출신 청년, 불발탄 2개로 인해 팔을 잃음

- 생존자들은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기본 인권임을 강조

● 베이루트 선언문(Beirut Declaration) 채택

● 베이루트 경과 보고서(Beirut Progress report) 채택

● 베이루트 최종 선언문 (Beirute Final Declaration) 채택

● 이후 일정

- 2012년 9월 10-14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3차 당사국 회의 개최

- 2012년 4월 16-19일, 제네바에서 CCM 회기간 회의 개최

[참고자료]

집속탄 피해 국가 및 지역(37개국)

Afghanistan, Albania, Angola, Azerbaijan, Bosnia-Herzegovina, Cambodia, Chad, Chechnya, Croati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ritrea, Ethiopia, Falklands/Malvinas, Georgia, Grenada, Iraq, Israel, Kosovo, Kuwait, Lao PDR, Lebanon, Mauritania, Montenegro, Mozambique, Nagorno-Karabakh, Saudi Arabia, Serbia, Sierra Leone, South Sudan, Sudan, Syria, Tajikistan, Thailand, Uganda, Vietnam, Western Sahara, Zambia, Yemen

집속탄 사용국(19개국)

Colombia, Eritrea, Ethiopia, France, Georgia, Iraq, Israel, Libya, Morocco, The Netherlands, Nigeria,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Former Yugoslavia (Serbia), Sudan, Thai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집속탄 생산국(35개국)

Argentina, Australia, Belgium, Bosnia-Herzegovina, Brazil, Chile, China, Croatia, Egypt, France, Germany, Greece, India, Iran, Iraq, Israel, Italy, Japan, Netherlands, North Korea, Pakistan, Poland, Romania, Russia, Serbia, Singapore, Slovakia, South Africa, South Kore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집속탄 보유국(86개국)

Algeria, Angola, Argentina, Austria, Azerbaijan, Bahrain, Belarus, Belgium, Bosnia & Herzegovina, Brazil, Bulgaria, Canada, Chile, China, Colombia, Croatia, Cuba, Czech Republic, Denmark, Ecuador, Egypt, Eritrea, Estonia, Ethiop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Guinea, Guinea Bissau, Honduras, Hungary, India, Indonesia, Iran, Iraq, Israel, Italy, Japan, Jordan, Kazakhstan, Kuwait, Libya, Moldova, Mongolia, Montenegro, Morocco, Netherlands, Nigeria, North Korea, Norway, Oman, Pakistan, Peru, Poland, Portugal, Qatar, Romania, Russia, Saudi Arabia, Ser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outh Korea, Spain, Sudan, Sweden, Switzerland, Syria, Thailand,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zbekistan, Yemen, Zimbabwe

집속단 금지협약 가입국 명단

(111개 서명국, 66개 당사국)

국가	서명	비준	협약 발효
Afghanistan	03-Dec-08	08-Sept-11	1-Mar-12
Albania	03-Dec-08	16-Jun-09	1-Aug-10
Angola	03-Dec-08		
Antigua & Barbuda	16-Jul-10	23-Aug-10	1-Feb-11
Australia	03-Dec-08		
Austria	03-Dec-08	02-Apr-09	1-Aug-10
Belgium	03-Dec-08	22-Dec-09	1-Aug-10
Benin	03-Dec-08		
Bolivia	03-Dec-08		
Bosnia and Herzegovina	03-Dec-08	07-Sep-10	1-Mar-11
Botswana	03-Dec-08	27-Jun-11	1-Dec-11
Bulgaria	03-Dec-08	06-Apr-11	1-Oct-11
Burkina Faso	03-Dec-08	16-Feb-10	1-Aug-10
Burundi	03-Dec-08	25-Sep-09	1-Aug-10
Cameroon	15-Dec-09		
Canada	03-Dec-08		
Cape Verde	03-Dec-08	19-Oct-10	1-Apr-11
Central African Republic	03-Dec-08		
Chad	03-Dec-08		
Chile	03-Dec-08	16-Dec-10	1-Jun-11
Colombia	03-Dec-08		
Comoros	03-Dec-08	28-Jul-10	1-Jan-11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18-Mar-09		
Congo, Republic of	03-Dec-08		
Cook Islands	03-Dec-08	23-Aug-11	1-Feb-12
Costa Rica	03-Dec-08	28-Apr-11	1-Oct-11
Côte d'Ivoire	04-Dec-08		
Croatia	03-Dec-08	17-Aug-09	1-Aug-10
Cyprus	23-Sept-09		
Czech Republic	03-Dec-08	22-Sep-11	1-Mar-12
Denmark	03-Dec-08	12-Feb-10	1-Aug-10
Djibouti	30-Jul-10		
Dominican Republic	10-Nov-09		
Ecuador	03-Dec-08	11-May-10	1-Nov-10
El Salvador	03-Dec-08	10-Jan-11	1-Jul-11
Fiji	03-Dec-08	28-May-10	1-Nov-10
France	03-Dec-08	25-Sep-09	1-Aug-10
Gambia	03-Dec-08		
Germany	03-Dec-08	08-Jul-09	1-Aug-10
Ghana	03-Dec-08	03-Feb-11	1-Aug-11
Grenada		29-Jun-11	1-Dec-11
Guatemala	03-Dec-08	03-Nov-10	1-May-11
Guinea	03-Dec-08		
Guinea Bissau	03-Dec-08	29-Nov-10	1-May-11
Haiti	28-Oct-09		

The Holy See	03-Dec-08	03-Dec-08	1-Aug-10
Honduras	03-Dec-08		
Hungary	03-Dec-08		
Iceland	03-Dec-08		
Indonesia	03-Dec-08		
Iraq	12-Nov-09		
Ireland	03-Dec-08	03-Dec-08	1-Aug-10
Italy	03-Dec-08	21-Sep-11	1-Mar-12
Jamaica	12-Jun-09		
Japan	03-Dec-08	14-Jul-09	1-Aug-10
Kenya	03-Dec-08		
Lao PDR	03-Dec-08	18-Mar-09	1-Aug-10
Lebanon	03-Dec-08	05-Nov-10	1-May-11
Lesotho	03-Dec-08	28-May-10	1-Nov-10
Liberia	03-Dec-08		
Liechtenstein	03-Dec-08		
Lithuania	03-Dec-08	24-Mar-11	1-Sep-11
Luxembourg	03-Dec-08	10-Jul-09	1-Aug-10
Macedonia, FYR	03-Dec-08	08-Oct-09	1-Aug-10
Madagascar	03-Dec-08		
Malawi	03-Dec-08	7-Oct-09	1-Aug-10
Mali	03-Dec-08	30-Jun-10	1-Dec-10
Malta	03-Dec-08	24-Sep-09	1-Aug-10
Mauritania	19-Apr-10		
Mexico	03-Dec-08	06-May-09	1-Aug-10
Moldova, Republic of	03-Dec-08	16-Feb-10	1-Aug-10
Monaco	03-Dec-08	21-Sep-10	1-Mar-11
Montenegro	03-Dec-08	25-Jan-10	1-Aug-10
Mozambique	03-Dec-08	14-Mar-11	1-Sep-11
Namibia	03-Dec-08		
Nauru	03-Dec-08		
Netherlands	03-Dec-08	23-Feb-11	1-Aug-11
New Zealand	03-Dec-08	22-Dec-09	1-Aug-10
Nicaragua	03-Dec-08	02-Nov-09	1-Aug-10
Niger	03-Dec-08	02-Jun-09	1-Aug-10
Nigeria	12-June-09		
Norway	03-Dec-08	03-Dec-08	1-Aug-10
Palau	03-Dec-08		
Panama	03-Dec-08	29-Nov-10	1-May-11
Paraguay	03-Dec-08		
Peru	03-Dec-08		
Philippines	03-Dec-08		
Portugal	03-Dec-08	09-Mar-11	1-Sep-11
Rwanda	03-Dec-08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23-Sept-09	29-Oct-10	1-Apr-10
Samoa	03-Dec-08	28-Apr-10	1-Oct-10
San Marino	03-Dec-08	10-Jul-09	1-Aug-10
São Tomé and Príncipe	03-Dec-08		
Senegal	03-Dec-08	3-Aug-11	1-Feb-12

Seychelles	13-Apr-10	20-May-10	1-Nov-10
Sierra Leone	03-Dec-08	03-Dec-08	1-Aug-10
Slovenia	03-Dec-08	19-Aug-09	1-Aug-10
Somalia	03-Dec-08		
South Africa	03-Dec-08		
Spain	03-Dec-08	17-Jun-09	1-Aug-10
Swaziland		13-Sep-11	01-Mar-12
Sweden	03-Dec-08		
Switzerland	03-Dec-08		
Tanzania	03-Dec-08		
Togo	03-Dec-08		
Trinidad and Tobago		21-Sep-11	1-Mar-12
Tunisia	12-Jan-09	28-Sep-10	1-Mar-11
Uganda	03-Dec-08		
United Kingdom	03-Dec-08	4-May-10	1-Nov-10
Uruguay	03-Dec-08	24-Sep-09	1-Aug-10
Zambia	03-Dec-08	12-Aug-09	1-Aug-10

3. CCM 2차당사국회의 시민사회영역 정리

3-1. 시민사회영역 일정정리

2011년 9월 11일 일

- 9시~ : CMC 활동가들 참가등록(CMC 티셔츠와 자료 배부)
- 11시~12시30분 : 무기관련 세미나(비공개)
- 2시30분~5시30분 : 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5시30분 : 환영파티

9월 12일 월

필드트립/개막행사

9월 13일 화

- 9시~10시 : 모닝브리핑
 - 1시~3시 : 사이드이벤트
- 생존한 재앙 : 레바논의 전쟁 후 재건과 개발 (먼로호텔, 블랙룸)
집속탄금지협약 이행을 위한 합동 접근 (먼로호텔, 레드룸)
2011 집속탄모니터 브리핑 (먼로호텔, 볼룸)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의 집속탄금지협약의 미래 (먼로호텔, 화이트룸)

9월 14일 수

- 9시~10시 : 모닝브리핑
 - 1시~3시 : 사이드이벤트
- 국내이행입법과 해석 (먼로호텔, 볼룸)
집속탄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남South-남South과 삼각협력 (먼로호텔, 화이트룸)
잔존집속탄의 토지해방을 위한 강화된 관리 접근 (먼로호텔, 블랙룸)
동료지지에 초점을 둔 사회심리학적 지원 (먼로호텔, 레드룸)- 3시~5시 : 국내이행입법 제정을 위한 활동가 워크샵
- 6시 : LMAC과 ICRC의 영화상영회 (먼로호텔)

9월 15일 목

- 9시~10시 : 모닝브리핑
 - 1시~3시 : 사이드이벤트
- 집속탄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 (먼로호텔, 블랙룸)
전세계 시민사회연합의 활동 (먼로호텔, 레드룸)
특정채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대한 CMC 브리핑 (먼로호텔, 볼룸)
젠더와 지뢰관련 활동의 실제 (먼로호텔, 화이트룸)- 6시 : 레바논 생존자팀과의 축구대회와 문화의 밤 행사(레바논대학 축구장)

9월 16일 금

- 8시~9시 : 모닝브리핑
- 12시~2시 : 사이드이벤트
- 집속탄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 : 공동의 책임 / 무기거래조약 (먼로호텔, 볼룸)
- 위협상황에서의 건강관리 (먼로호텔, 레드룸)
- 5시 : CMC 기자회견 (먼로호텔)
- 8시 : CMC 종파티 (St.Georges 요트 클럽)

9월 17일 토

- 8시~3시 : 펠드트립 (물리타)
- 3시 : CMC 보고회 (먼로호텔, 볼룸)

3-2. 진행한 인터뷰 간략 정리

- 메리 위리암(뉴질랜드, Aotearoa New Zealand Cluster Munition Coalition (ANZCMC) 간사) : 9월 16일 금요일 오전에 진행. 뉴질랜드의 집속탄반대활동 과정, 뉴질랜드 정부는 집속탄금지협약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유용한 캠페인 팁 공유. 1. 신문에 '집속탄 30개 숨은그림찾기' 광고 내기. 다 찾으면 마지막에 '다 찾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는 아직 찾아야 하는 훨씬 많은 집속탄이 남아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광고를 실었음. 2. 사람들이 자리에 누우면 그 주위를 형상대로 분필로 그리고, 그린 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지지의 의미로 자기 자리에 서명을 함. 그런 사람 형상이 1000여개가 되면 1000여개의 사람 형상이 그려지게 되고 '이곳에 만약 집속탄이 떨어진다면,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캠페인을 도시 한 가운데에서 진행.

- 애나(스웨덴, Swedish Peace and Arbitration Society (SPAS) 대표) : 9월 16일 금요일 오후에 진행. 스웨덴의 상황과 활동에 대한 공유. 스웨덴 역시 집속탄을 사용, 수출한 적도, 피해자도 없어서 활동초기에 이슈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음. 그래서 집속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실을 전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경험 공유. 집속탄은 군사적으로도 더 이상 유용한 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안보의 관점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 등

- 준코 우즈미(일본, JCBL 사무국장) : 9월 17일 토요일 저녁에 진행. 처음부터 적극적이지 않았던 일본정부를 설득해 서명과 비준을 하게하는 과정 공유. 2006년 일본정부의 협약 가입을 촉구하기 위한 JCBL(일본지뢰금지캠페인)이 만들어진 이후 그 활동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태도가 바뀜. 세르비아 생존자를 도쿄로 초청하고 이를 활용해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고, 이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게되면서 여론의 변화가 생김. 현재 일본정부는 CCM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주일미군은 집속탄을 보유, 훈련에 사용하고 있고 이를 자신의 관할지역으로 보지 않고 있음. 현재는 투자철회 캠페인에 집중하는 중.

3-3. 참여한 사이드이벤트 중 핵심내용 정리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대한 CMC 브리핑>

-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1983년 12월 발효)는 현재 집속탄에 관한 제6의정서를 논의 중. 8월 22-26일 제네바에 열린 CCW 정부전문가그룹GGE 3차 회의에서 논의된 초안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논의 중인 CCW 제6의정서에서는 특정 조건(불발율 1% 미만, 자기파괴장치 장착, 1980년 이전 생산된 집속탄의 사용제한 등)을 충족시키는 집속탄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CMC는 제6의정서 초안이 집속탄 논의에 대한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 통과될 경우, 집속탄 사용의 금지가 아니라 사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있음. 특히 CCM과의 충돌된다는 것을 강조(CCW 114개국 중 75개국이 CCM 가입국)하며, 올해 11월에 열리는 CCW 회의에서 협상에 참여하지 말고 CCM에 가입할 것을 촉구함.
-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의 집속탄 생산과 보유를 하고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CCW가 있다는 이유로 CCM 가입을 하지않고 있음.
- 전장잔류폭발물ERW에 관한 CCW 제5의정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속탄 사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었고, CCW 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집속탄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별도의 CCM이 만들어지게 된 것임.
- 한국은 CCW 가입국(2001년 5월)이자 제5의정서 비준국가.(2006년 11월 12일 발효)
- 회의참가 전에 보낸 외교부에 보낸 질의서 답변에서는 CCW 관련 논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모니터링에 참여한 외국활동가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한국은 제6의정서 초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고 알려짐. 심지어 구식(1980년 이전 생산) 집속탄 사용금지와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음.

The Republic of Korea indicated support for the Chair's text as a basis for work but stated that it found Articles 4 and 5 of the current text (on the general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n cluster munitions produced before and after the 1 January 1980 cut-off date) "difficult to accept."

- 제6의정서 초안에 반대, 비판한 국가 :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칠레, 뉴질랜드, 라오스, 스페인, 캐나다, 스위스, 남아프리카, 과테말라, 우루과이, 레바논
- CCM 당사국 중 제6의정서 초안을 지지, 11월 논의를 지속하자는 국가 :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호주, 덴마크, 스웨덴, 포르투갈, 이탈리아
- CCM 비당사국 중 제6의정서 초안 지지 국가 : 폴란드, 쿠바, 슬로바키아, 그리스, 핀란드, 브라질, 벨라루스, 인도, 아르헨티나, 러시아, 미국, 중국, 루마니아, 터키, 에스토니아, 한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 11월 14~25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CCW 당사국 4차 평가회의의 관련 진행상황 모니터링 필요.

<집속탄에 대한 세계적 투자 : 공동의 책임>

- 2009년 10월 처음으로 투자관련 보고서 발간, 이번 보고서는 2011년 5월 최신판의 정보.
- 집속탄에 대한 투자 금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름을 올리는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23개 금융기관이 올랐고, 모두 CCM 가입국의 기관임. 5개 국민연금(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2), 3개 윤리적 은행, 15개 사설금융기관. 작년보다 2곳 추가.
- 금지를 하고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 특정 형태의 투자가 가능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차상위(Runner-up)' 기관은 총 24개. 작년보다 8곳이 늘어남.
- 집속탄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CCM 1조 1항에서 금지한 '집속탄 개발, 생산에 대한 지원'

로 해석하는 나라는 호주,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과테말라, 바티칸, 아일랜드,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타, 멕시코, 뉴질랜드, 르완다, 영국, 잠비아.

- 국내입법을 추진, 논의 중인 국가들이 많아서 더 늘어날 예정.

- '수치의 전당(Hall of Shame)'에서는 빨간깃발로 선정된 집속탄생산기업 8개(알리안츠테크시스 템, 록히드마틴, 한화, 풍산, 노린코, 싱가포르기술공학, Splav, 테크론)에 전세계 166개 금융기관이 총 3백9십억 달러를 투자.

- 166개 중 한국은 26개로 두 번째로 많음. (1위 미국 73개, 한국 2위 26개, 중국 3위 21개)한국 산업은행은 대출부분 2위를 기록

- 현재 한국의 집속탄 생산기업 한화와 풍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총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49개(한화 32개, 풍산 34개)이고, 그 중 한국 금융기관은 총 26개(한화 20개, 풍산 18개)이며 이전보다 더 늘어난 숫자임.

		한화	풍산
1	부국증권		√
2	천안북일교육재단	√	
3	대신그룹		√
4	대우증권	√	
5	동부증권	√	
6	유진투자증권	√	
7	한국수출입은행		√
8	한양증권	√	
9	한화증권	√	√
10	HI투자증권	√	√
11	HMC투자은행	√	
12	국민은행	√	√
13	한국산업은행	√	√
14	한국투자증권	√	√
15	KTB자산운용		√
16	메리츠증권	√	
17	마이더스자산운용	√	
18	미래에셋증권	√	√
19	농협		√
20	국민연금	√	√
21	삼성그룹	√	√
22	신한은행	√	√
23	신양증권		√
24	SK증권	√	√
25	동양증권	√	√
26	우리투자증권	√	√
		20	18

- 한화와 풍산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사실관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한화와 풍산이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집속탄에 대해 잘 모를 가능성.

- 금융기관들에게 윤리적 투자기준에 대한 요구, 특히 국민연금 부분.